



보도시점 2025. 4. 29.(화) 11:00
4. 30.(수) 조간

배포 2025. 4. 29.(화) 09:00

검역본부, 미국 미시간주립대와 수의법의 약독물학 발전 업무협약(MOU) 체결

- 세계적인 진단기관과의 협력으로 반려동물 중독사례 등 대응 고도화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학대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수의법의학(獸醫法醫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등에서 약독물 중독사례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독 여부를 판단하는 약독물 검사(Forensic Toxicology)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4월 24일 수의법의 약독물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 기관으로 평가받는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와 약독물 분야의 진단 및 분석 기술 전수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미시간주립대학교 수의과대학은 약독물 분야에 특화된 미국 내 대표적인 진단실험실로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및 세계 20여 국가 등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가장 가장 많은 약독물 사례를 진단하며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수의법의 약독물 진단실험실 책임자인 존 부크 와이츠(John Buchweitz) 교수는 미국 내 약독물분야 전문실험실을 대상으로 진단능력 정도관리(Proficiency Testing)를 주도하는 등 약독물학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검역본부와 미시간주립대학교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수의법의 약독물 관련 기술 및 지식 공유, ▲ 국제공동연구 추진, ▲ 현지 교육 및 실습 훈련 지원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반려동물 등에서 약독물 중독사례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사례 해결을 위해 국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의법의 약독물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협업 연구과제 발굴, 전문인력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동물학대 범죄의 과학적 증명을 위한 수의법의 약독물 진단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전문기관으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와 함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검사기법 기술전수, 최신정보 공유 등 국내 수의법의 약독물학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별첨 업무협약식 사진

담당 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	책임자	과 장	구복경 (054-912-0458)
		담당자	연구관	변재원 (054-912-1026)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